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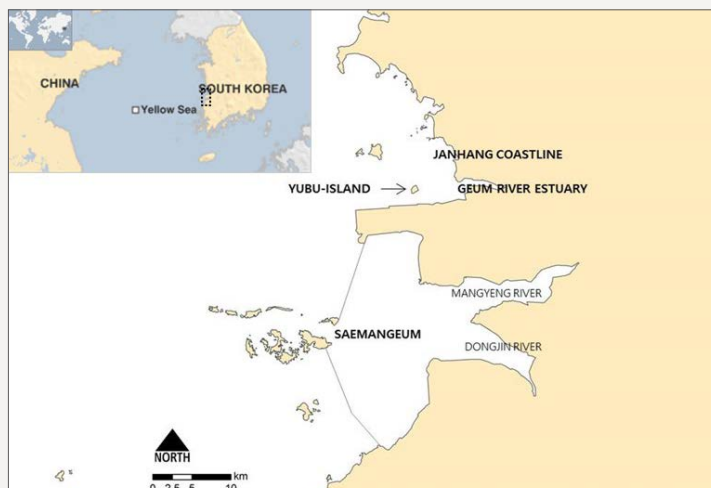
## 인류의 자산인 서천 갯벌과 유부도

충남연구원  
정옥식 선임연구위원

### 1. 선정 배경

#### 1) 서천갯벌과 유부도의 중요성과 보전 시급성

- 유부도와 장항해안, 금강하구를 포함하는 서천갯벌은 인류의 자산인 세계자연유산 이자 국제적 철새이동 경로상의 중요 서식지임
- 국내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 전체 무리의 47~63%의 개체가 번식지 혹은 월동지로 이동 시 서천갯벌을 이용함
- 새만금 매립이 진행되면서 도요물떼새 무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붉은어깨도요는 전세계 생존개체수의 78%가 사라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등재되었음
- 특히, 유부도는 서식 개체수가 가장 많으며 더불어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 하는 등 서천갯벌 내에서 핵심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서식지 감소와 훼손으로 인해 우리나라 갯벌이 포함된 이동 경로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로라 불리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격한 개체수 감소하고 있음



충남 서천갯벌, 유부도, 새만금 지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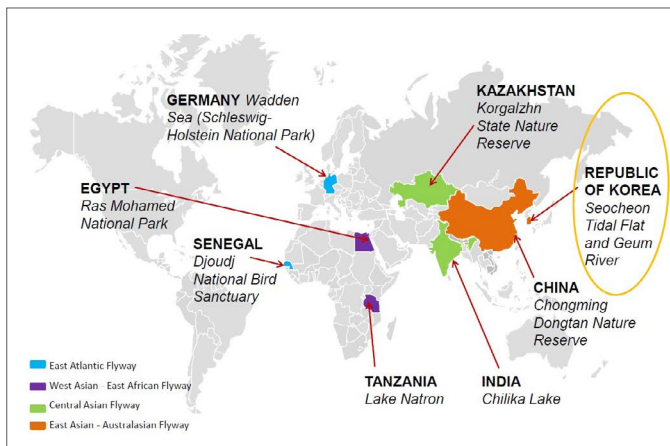
## 2) 서천군 여건을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 모색 필요

- 서천군은 충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며 인구 감소를 비롯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인접한 군산시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지역 내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따라서, 보전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도입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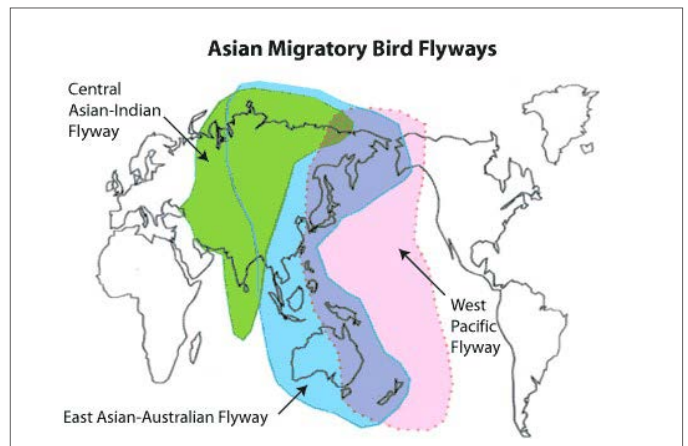
## 2. 추진 현황

### 1) 서천 갯벌과 유부도 사업 추진 현황

- 2008년에 서천군 서면(월호리), 비인면(다사리, 장포리) 종천면(당정리) 및 유부도 일대의 연안습지 15.3km<sup>2</sup>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009년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18년에는 습지보호지역을 약 68.09km<sup>2</sup>로 확대 지정하였음
- 2014년 UN WTO(세계관광기구)가 주관한 세계 8대 철새생태관광지로 선정되었음
  - 본 사업은 세계관광기구가 UNEP, BIRDLIFE INTERNATIONAL, WETLANDS, IUCN, EAAFP, RAMASAR,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단체들과 협업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국제적 중요 철새 서식지에 대해 자원 보전과 생태관광 운영을 지원하여 국제적 자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추진함
- 2021년 7월 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
  - 한국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19년에 서천갯벌과 함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5월 '반려'를 권고하였으나 서천갯벌이 지닌 철새서식지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등재되었음
  - 2021년 5월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보성·순천 등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유산 위원회에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 서식지로서의(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이동로) 가치는 인정하나, 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반려'를 권고하였음



UN WTO가 지정한 세계 8대 생태관광지역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 지역 철새 이동 경로

## 2) 충남연구원 연구 및 현장 활동

- 2008년 ‘유부도 지역 도요물떼새 현황 파악’ 현안과제 추진
  - 유부도의 도요물떼새 서식지 현황과 도요물떼새 보전관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협력 방안 등을 다룸
- 2009년 서천갯벌의 서식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공간인 ‘조류생태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현안과제를 수행함
- 2014년에 UN WTO(세계관광기구)가 주관한 세계 8대 철새생태 관광지 선정 사업 제안서 작성에 참여함
- 2014~2015년에는 수탁과제로 ‘유부도 도요물떼새 모니터링 사업과 보전관리계획’을 수행하며 도요물떼새 서식 현황과 서식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
- 2015년에는 전략과제로 ‘충남 중요 생물서식지의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수행
  - 유부도를 공간 대상으로 생물서식지를 자원화하여 생물보전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생태관광’이라는 도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2017년 그간의 20여 년 동안의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새만금지역을 비롯한 금강하구 일대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의 서식 변화상에 대한 논문이 BIRD CONSERVATION INTERNATIONAL에 게재됨
-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활동 시 서천갯벌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와 서천갯벌의 우수성에 대한 축적된 자료를 제공함
- 2020년부터는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서천갯벌에서 새롭게 발견된 저어새 집단 번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수부에서는 해당 무인도에 대한 ‘이용’ 등급을 격상시켜 훼손 가능성을 낮춤



Birdlife International의 보전 활동으로 유부도에 만들어진 철새의 간이 휴식처

## 3. 정책 과제

### 1)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와 자연보전이 양립할 수 있는 지역발전 모델 추진

- 생태관광이란 우수한 자연 자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채산성과 더불어 창출된 이익이 지역 내에서 골고루 분배된다는 장점도 있음
- 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생태관광 운영 측면에서 일종의 ‘브랜드’ 효과가 상당하며, 세계자연유산은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니며 탐방객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에 의한 생태관광이 운영될 경우 자연 보전과 지역발전이 함께 선순환할 가능성이 높음

## 2) 생태관광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인적 자원 양성

- 가이드 양성 교육,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생태관광 운영 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이 요구됨
- 지역 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생태관광 운영에 필요한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마련, 생태관광 운영과 경영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함

## 3) 도요물떼새 지속적인 서식을 위한 서식지 보전관리 사업 추진

- 서천갯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먹이량 부족, 휴식처 부재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서천갯벌 인접한 공간에 인공습지 조성을 통한 휴식처 제공이 필요함
  - 서천갯벌 내 먹이자원의 양적 확보를 위해 갯벌 내 생물량 증대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 해수 유통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제사회와 연대한 종 복원 사업을 추진함
  - 2014년부터 국제환경단체인 Birdlife International 등이 주관하여 유부도 보전 활동과 지역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다국적 기업인 Rio Tinto와 Woodside 등 기업 후원비로만 충당되고 있는 상황임
  - 서천갯벌 지역에 서식지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단체나 지자체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또한,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몇몇 종은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넓적부리도요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 종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붉은어깨도요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복원에 함께 동참함



CNI정책현장은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정책연구와 관련된 현장 중심의 문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의성을 중심으로 한 월간 브리프임